

韓 경제 '디지털 생산성'에 달려 ... 소프트웨어 분야 투자 늘려야

김형철 소장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hc.kim@spri.kr

올해 기관별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1% 초반도 위태롭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가 마음을 무겁게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2020~2030년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OECD 평균(1.3%)보다 살짝 높은 1.9%를 기록하지만 2040~2050년에는 일본(0.3%)보다 낮은 0%이고, 2050~2060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마디로 향후 20년 후에 한국 경제는 '화석화(化石化)'돼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국면이 전개되는 원인 첫 번째는 바로 사람 부족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선진국의 성장을 급락 현상에서 관찰되는 공통점이 바로 인구 감소,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이다. 한국은 2019년(3,763만 명)을 정점으로 생산인구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계청도 우리가 2030년 3,381만 명, 2040년 2,852만 명 등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하락하며 2062년에 2,000만 명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자본 이탈이다. 과거 우리 기업의 전체 제조업 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은 한자리 숫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글로벌 경제 블록화와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선진국의 리쇼어링, 미국의 IRA 등 요인으로 해외 현지 투자가 유리하여 자본의 국내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2021년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 규모는 189조 9,000억 원인데, 해외 투자는 87조 5,000억 원(46%)을 기록했다. 기업과 자본의 국내 이탈은 국내 일자리 감소와 실질소득 하락으로 연결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사이클이 작동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창출하는 생산물이 생산성이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잠재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 이외에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재화를 투입해서 창출하는 생산성 증가분, 즉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주목해야 한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이외에 제도, 문화, 기술 등 소위 보이지 않는 요소에 의한 성장 기여를 의미한다. 이 중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혁신은 인력과 제도, 기술을 포함하는 일종의 무형 재화로서 각국이 선도적 투자를 집중하는 요소이다. 일각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1% 증가는 국내 GDP를 0.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도 한다.

지금의 시대는 디지털의 파도가 격동을 치고 있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디지털 기술 혁신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저변에는 지능형 반도체부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연결시키는 광범위한 소프트웨어가 바탕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이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패권경쟁을 전개하는 것도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의한 변혁이 국가의 경쟁력 증강과 직결되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디지털 기초체력 강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소프트웨어가 사회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역할이라는 것이 정확히 조명됐고, 디지털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고급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 개발과 글로벌 지향형 기업 육성 등의 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총요소생산성 향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라는 탄실한 주춧돌 위에서 디지털 생산성을 경제와 산업혁신의 대들보로 활용하며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견인하는 묘수라고 할 수 있다.

※ 이 칼럼은 매일경제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韓 경제 '디지털 생산성'에 달려 ... 소프트웨어 분야 투자 늘려야 [기고], 매일경제, 2023.6.12.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42728>